

유럽 화학산업 경쟁력 “이상신호”

제약산업 제외하면 경쟁력 추락 ... 장기적으로 존폐위기 직면 가능성

유럽 화학기업들이 2004년 영업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악한 시장여건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화학산업의 단기적 또는 장기적 경쟁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유럽 화학기업들은 화학시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인력을 감축했다.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Cefic)에 따르면, 유럽 화학산업은 2000년 이후 수익성이 크게 하락했으며 불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 초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주기적 침체기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표시로 생산 베이스가 점차 붕괴되면서 화학산업 경쟁력이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2002년은 유럽 화학기업들에게 힘든 한 해로 제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화학산업이 0.6% 정도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약세를 나타냈다.

또 2003년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불안심리와 EU를 비롯한 세계적인 경기악화로 타격을 받았다. 2003년 EU의 GDP는 0.7% 성장하는데 그쳤다.

다만, 유럽 화학기업 대부분은 중기적으로 세계경기가 호조를 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ASF는 전세계에 걸쳐 경기가 바닥을 벗어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및 미국 시장의 성장이 세계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Cefic 역시 2004년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efic은 세계 GDP 성장률이 2003년 2.5%에서 2004년 3.4%로 상승하고 산업 생산증가율도 1.8%에서 4.2%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U 산업 전체도 2003년 0.1% 마이너스 성장에서 2.8%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efic에 따르면, 제약을 제외한 EU 화학산업 생산량은 2004년 약 2% 증가하고 제약분야를 포함하면 2.5% 증가해 전체 평균 산업 생산증가율 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약산업 생산량은 약 4.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석유화학 생산증가율은 2.5%, Polymer 분야는 1.7%, 정밀화학 및 특수화학은 2.4%, 무기 및 기초화학 분야는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화학산업은 2005년까지 회복세를 지속해 제약분야를 제외하면 2005년 약 2.7% 성장하고 제약을 포함하면 약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제약부문은 약 4.4%, 석유화학은 3.3%, Polymer는 2.9%, 정밀화학 및 특수화학은 2.7%, 무기 및 기초화학은 2.0% 성장할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4/08/02>